무라카미 하루키(村上春樹) 문학의 한국어판 번역의 검증과 조망*

-오역과 번역투를 중심으로-

오경순**
ksohlee@naver.com

<目次>

1. 시작하며
2. 오역과 번역투 및 가독성 개념
3. 무라카미 하루키(村上春樹) 문학의 한국어판 출판 현황
4. 무라카미 하루키(村上春樹) 문학의 한국어판 번역 검증
   4.1 오역 예
   4.2 번역투 예
5. 마치며

主題語: 무라카미 하루키 문학(Haruki Murakami Literature), 검증과 조망(View and Verification), 오역(Mistranslation), 번역투(Translationese), 대안번역(Alternative Translation)

1. 시작하며

현대 지식사회에서 번역은 문화의 힘으로 간주되며, 모든 문화 한 가운데 번역이 존재한다. 또한 번역은 다양한 문화와 올바른 지식을 접할 수 있는 길잡이와도 같으며 자국어와 자국문화를 지켜내는 힘이 된다.

더욱이 21세기 전 세계가 지구촌 사회로 탈바꿈하면서 번역은 단순히 언어 간의 기능을 뛰어넘어 한 국가의 문화 경쟁력을 가늠하는 잣대로 새롭게 인식되며 그 역할과 기대감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과 맞물려 번역의 중요성이 재인식되고 번역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강조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추세이다.

번역은 원문의 내용과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번역문으로 올바르게 표현하고 전달해야

* 이 논문은 2015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논문임. (NRF-2015S1A5B5A07042386)
** 가톨릭대학교 동아시아언어문화학부 일어일본문화전공 강사

한다. 즉 번역작업이란 크게 두 가지 과정, ‘원문 이해 과정’과 ‘번역문 표현 과정’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원문 이해 과정’과 ‘번역문 표현 과정’이 말처럼 그리 녹록한 작업이 아니다.

간단한 일본어 예를 들어보면「もうたくさんだ。」라는 말은 흔히 달갑지 않은 상황에서 화자의 분노나 노여움이 드러나는 표현이다. 글자 그대로 ‘이제 충분하다’로 번역하면 오역이 될 것이고 ‘더는 필요 없어’ 혹은 ‘이제 딱 질색이다’가 제대로 된 번역이다.

영어에도 이와 비슷한 표현이 있다. 바로 ‘Enough is enough’이다. 좋지 않은 상황이 이어져 참을 수 없거나 화가 날 경우에 쓰는 말이다. 따라서 ‘Enough is enough!’는 ‘이제 그만 해요!’ 혹은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로 번역해야 원문의 의미에 부합하는 번역이다.

번역작업의 두 가지 과정인 ‘원문 이해 과정’과 ‘번역문 표현 과정’에서 흔히 부각되는 어려운 문제와 함정은 도처에 도사리고 있다. 위에서 기술한 (1) 원문 파악 부정확에 따른 오역 외에도 (2) 직역투·번역투·한문투 등 문체의 문제 (3) 방언 및 사투리 번역 (4) 문화적 등가성이 존재하지 않는 이문화 용어의 번역 (5) 문장의 길이, 빈칸과 구두점, 부호 등의 언어 외적인 번역 문제 (6) 누락, 부연, 생략 등의 번역자의 의도적 개입 문제 (7) 일본어 가나의 한글 표기법의 오류 (8) 언어능력·인지능력·전문능력 등 번역의 근본이 되는 번역자의 자질문제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 출판 시장에서 번역 도서가 차지하는 비중은 대단히 크다. 2015년도 우리나라 출판 통계를 보면 신간 도서 발행 종수는 총 4만 5,213종(만화 포함)이었으며, 이 가운데 번역 도서는 9,714종으로 전체 도서 발행 총수 중 번역 도서가 차지하는 비중은 21.5%였다. 우리나라에서 출판되는 도서 다섯 권 중 한 권 정도가 번역 도서인 셈이다. 또한 2015년도 번역 출판 현황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번역은 여전히 일본, 미국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국가별로는 일본(4088종), 미국(2741종), 영국(752종), 프랑스(496종), 중국(480종), 독일(344종)순이었다. 특히 전체 번역 도서 9,714종 가운데 일본어 번역도서 비중은 42.1%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1)]

위 통계 자료에서 번역 도서만을 놓고 보면 우리나라에서 출판되는 번역 도서 양은 하루에 약 27권 정도인데 그 중 일본어 번역 도서는 하루에 약 11권이 출판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일본어 번역서의 양은 압도적인데 비해 번역에 대한 체계적인 검증과 조망을 다룬 논문이나 번역 연구서, 번역 지침서 등은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1990년대 이후 쏟아져 들어온 일본문학의 한국어판 번역에 대한 심도 있는 비평과 검증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1) 2015년도 대한출판문화협회 홈페이지 출판 통계 자료 참조: http://www.kpa21.or.kr

일어일문학 연구자들의 본격적인 번역에 대한 담론 형성의 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무라카미 하루키는 1989년 문학사상사에서 출간된『상실의 시대』를 계기로 한국의 젊은 독자층을 사로잡으면서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 일으켰다. 그 후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져 나온 무라카미 하루키 문학은 한국출판시장에서 확고한 우위를 선점하면서 현재까지 한국 독자들에게 가장 잘 팔리는 일본 인기작가로 자리매김하였다. 이른바 '하루키현상(Harukism)', '하루키스트(Harukist)'와 같은 신조어들은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무라카미 하루키 문학이 차지하는 위상을 잘 대변해준다.

> 「'하루키 현상(the Murakami Phenomenon)'이란 세계 어디에서나 들을 수 있는 말이지만, 그 중에서도 한국은 아마 일본 이외에 가장 초기 단계에서부터 무라카미 하루키 문학에 동참하며 뜨거운 반응을 보인 나라일 테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화려한 한국 상륙 이후 1990년대부터 거의 20년 이상에 걸쳐 일본소설은 한국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외국 문학의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그런 의미에서 무라카미 하루키는 과거 20년 동안 한국에서 일본문학 붐을 지핀 장본인이자 견인차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2] (필자 역)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는 현존하는 일본 최고 인기작가인 무라카미 하루키 문학 작품의 한국어판 번역의 검증과 조망을 시도한다. 앞서 기술한 번역작업의 두 가지 과정인 '원문 이해 과정'과 '번역문 표현 과정'에서 흔히 부각되는 어려운 문제와 함정 여덟 가지 중에서 오역과 번역투를 중심으로 검증·조망하고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면서 대안 제시를 본고의 고찰 목표로 한다.

2. 오역과 번역투 및 가독성 개념

우리말에 남아 있는 부자연스러운 외국어의 흔적을 번역학에서는 '번역투(飜譯套, translationese)'라 부른다. 번역투란 문맥과 독자층을 고려하지 않고 판에 박은 듯한 용어를

2) 「ハルキ現象(the Murakami Phenomenon)」という言葉は、世界中いたるところで聞こえるようになったが、そのなかでも韓国はおそらく日本国外で最も早い段階で村上春樹の文学に賛同し、熱く反応した国であるはずだ。村上春樹の華々しい韓国上陸以後、1990年代からほぼ20年以上に渡り、日本の小説は韓国においてもっとも読まれている外国文学のひとつになっている。そういう意味で、村上春樹は過去20年間韓国における日本文学ブームの火付け役であり、また牽引役でもあったといえる。尹相仁(2014)、p.180

사용해 조건반사적으로 번역한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어떤 글에서 원문(original text)이 아닌 번역문(translated text)이라는 흔적이 일정하게 반복적으로 출현하는 경우, 그러한 특성을 번역투라 한다. 요컨대 번역투는 친숙한 모국어 언어 체계나 모국어 어법을 훼손, 왜곡함으로써 가독성이 저하되어 번역서를 읽는 독자나, 번역의 품질을 평가하는 번역비평가에게 대체로 부정적 인식을 심어준다.(김정우, 2007)

본고에서는 번역투를 '원문 구조에 치우친 직역의 결과로 번역문에 나타나는 상투적이고 어색한 외국어식 표현'으로 정의한다.(오경순, 2008)

아래 예 (1)의 경우가 원문을 직역한 번역투 표현의 예이다.

(1) 「おまえの関西弁は、東京人が後天的に学習したにしては、異様なくらい完璧すぎる」木樽はそれについて僕の言い分を認めた。
「そやな。そういうのはちょっと普通やないかもしれん」
「**普通の神経を持ち合わせた人間は**、なかなかそこまでやらない」
『女のいない男たち、pp.103-104』

"너의 간사이 사투리는 도쿄 사람이 후천적으로 학습한 것치고는 이상할 정도로 완벽해."
기타루는 그에 대해서는 내 의견을 인정했다.
"그래, 그건 좀 일반적이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일반적인 신경을 가진 인간이라면** 웬만해서는 그렇게까지 안 한다고."
『여자 없는 남자들, pp.100-101』

➪[3] … "**보통 사람들은** 웬만해서는 그렇게까지 안 한다고." …

위 예문 (1)에서 「普通の神経を持ち合わせた人間は」의 한국어 번역인 '일반적인 신경을 가진 인간이라면'은 일본어 원문을 그대로 직역한 번역투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신경을 가지다'란 한국어 표현은 어색하며 거의 쓰지 않는 표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普通の神経を持ち合わせた人間は」의 한국어 번역으로는 '보통 사람들은' 혹은 '일반적인 인간이라면' 정도가 문맥에 어울리는 자연스러운 번역이다.

이처럼 번역투는 우리말 표현의 적합성, 즉 가독성(readability)과 관련된 번역문과 번역문

3) 이 논문에서 기호 '➪' 는 필자의 번역예시를 뜻한다.
우리말 어법에 맞는 가장 자연스럽고 편안한 우리말 번역을 찾아가기 위해 제시한 필자의 번역예시는 말 그대로 하나의 번역 방안으로써, 이것만이 유일하고 완벽한 모범 답안이라는 뜻은 아니나, 바람직한 번역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시도이다.

독자의 관계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엄밀하게 말해 번역투는 오역이 아니다. 번역투는 번역자가 원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거나 혹은 우리말 구사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나게 된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우리말 번역을 위해서는 우리말 표현 능력이 전제되어야 함은 물론, 번역자는 번역투의 문제를 사전에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가급적 줄여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번역투는 오역이 아니라는 인식이 강해 번역투의 확산을 초래한다. 번역투는 한국어의 정상적인 발달과 다양한 표현 기회를 저해하고 한국어 어문구조를 왜곡, 훼손시킨다. 그러므로 번역투는 반드시 극복해야할 오류이다.

한편 오역(mistranslation)이란 원문에 대한 언어 내·외적[4]인 이해, 지식 부족으로 원문의 정확한 의미 전달에 실패한 번역을 말한다.

번역투가 번역문과 번역문 독자의 관계를 나타내는 독자 중심 개념이라면 오역은 번역의 정확성, 어감 전달의 적절성에 관련된 원문과 번역문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아래 예 (2)의 경우가 원문 파악 부정확에 따른 오역 예이다.

(2) 五時半に電話のベルが十二回鳴ったが、受話器をとらなかった。ベルが鳴りやんだあとも、その余韻は部屋の淡い夕闇の中に**ちりのように**漂っていた。置時計がその硬い爪先で空間に浮かんだ透明な板をこつこつと叩いていた。

『ねじまき鳥クロニクル <第1部> 泥棒かささぎ編、p.48』

5시 30분에 전화벨이 열두 번 울렸지만 수화기를 들지 않았다. 벨이 그친 후에도 그 여운은 방의 옅은 땅거미 속에 **냄비 요리처럼** 감돌고 있었다. 탁상시계가 그 딱딱한 손톱 끝으로 공간에 떠 있는 투명한 판을 딱딱 치고 있었다. 『태엽 감는 새1, p.47』

➪ … 방의 옅은 땅거미 속에 **먼지처럼** 감돌고 있었다. …

위 예문 (2)에서 「ちりのように」의 한국어 번역 '냄비 요리처럼'은 명백한 오역이다. 물론 일본어 사전을 보면 「ちり」의 의미로 '냄비 요리의 한 가지. 생선·두부·채소 등을 냄비에 끓여서 초간장에 찍어 먹는 냄비 요리'란 뜻도 있다. '냄비 요리'란 뜻으로 쓸 때에는 주로 「ちり鍋, ふぐちり」 등으로 표현한다. 하지만 위 예문 (2)에서 「ちりのように」는 '티끌이나 먼지처럼 보이지 않는 아주 미세한 입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ちりのように」의 한국어 번역

4) 라이스(Reiss, 1971:54-88)가 제시한 언어 내적·외적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언어 내적 기준intralinguistic criteria: 의미론적semantic, 어휘론적lexical, 문법적grammatical, 문체론적 stylistic 특성.
② 언어 외적 기준extralinguistic criteria: 상황situation, 주제분야subject field, 시간time, 공간space, 수신자 receiver, 발신자sender, 정서적 함의affective implications.

은 ‘먼지처럼’ 혹은 ‘티끌처럼’이 올바른 번역이다.

한편 가독성(readability)이란 독자가 원문의 내용을 얼마나 쉽게 이해하느냐를 판단하는 용어이다. 다시 말해서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독자의 이해 정도를 가리키는 말이다.

번역투와 가독성이 관련되는 것은 번역투 표현은 우리말 어법에 맞지 않아 낯설고 어색하며 어려워서 가독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아무리 수준 높은 학술서도 쉽고 정확한 글로 표현하지 못하면 그만큼 가치가 떨어지듯, 어법에 맞고 이해하기 쉬운 자연스런 우리말로 옮기지 못한다면 그만큼 가치가 퇴색되기 마련이다.

3. 무라카미 하루키(村上春樹) 문학의 한국어판 출판 현황

본고의 <번역출판현황> 작품 통계는 출판사의 중복 출판(초판, 재판) 경우 및 상·중·하권 혹은 1권~3권 등 시리즈로 출간된 작품의 경우도 출판 횟수를 1회, 즉 한 작품으로 취급한 통계 수치다. 그러나 동일한 원작이라도 각기 다른 출판사에서 각기 다른 제목으로 번역 출간된 경우는 별도의 작품으로 집계하였다. 1988년~2016년까지 번역 출판된 무라카미 하루키(村上春樹) 작품의 한국어 번역 작품 총수는 163권이지만 중복 출판 및 시리즈 출판의 경우를 각기 한 작품으로 산정하여 집계한 본고의 번역 작품 통계 수치 118권과는 차이가 있다.[5)]

예를 들어 『상실의 시대(ノルウェイの森)』는 1989년에 처음 국내에 소개된 이후 역자를 달리하며 각기 다른 출판사에서 5회 이상 중복 번역 출판되었다. 문학사상사에서 출간한 번역서만 『상실의 시대』라는 제목으로 간행되었고, 그 외는 원작 그대로인 『노르웨이의 숲』이란 제목으로 간행되었다. 따라서 원작은 동일한 『ノルウェイの森』이지만 『상실의 시대』, 『노르웨이의 숲』처럼 각기 다른 제목으로 출간된 경우는 두 작품으로 취급하였다.[6)]

다음 <표1>과 <그래프1>은 연도별·장르별 한국어판 번역 작품 편수 현황을 나타낸다. <표2>는 연도별 소설작품 목록을 정리한 표이며, <표3>은 연도별 수필작품 목록을 정리한 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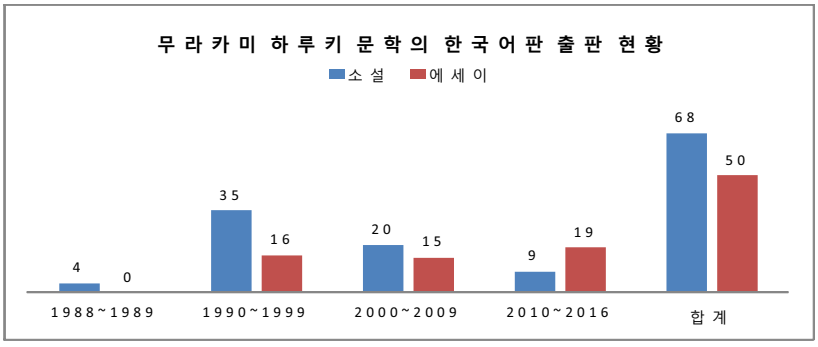
---

5) 무라카미 하루키(村上春樹): 1988년~2016년 한국어 번역 작품 총수 163권.
국립중앙도서관 자료검색: http://www.nl.go.kr/nl/index.jsp(필자 검색, 검색일 2017.3.20)

6) 또한 본고 p.16의 주)8에서 인용한 윤상인 외(2008)의 통계 수치와도 차이가 있다.
윤상인 외(2008:40)는 번역 횟수 및 출판 횟수는 동일한 작품이라도 다른 번역자에 의해 번역 되었거나, 같은 번역자에 의해 동일한 작품이 두 번 이상 출판된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표1> 연도별·장르별 한국어판 번역 작품 편수

연도 / 장르	1988~1989	1990~1999	2000~2009	2010~2016	합계
소설	4	35	20	9	68
에세이	0	16	15	19	50
합계	4	51	35	28	118



<그래프1> 연도별·장르별 한국어판 번역 출판 현황

<표2> 연도별 소설작품 목록

연도	소 설	총 68권
1988~1989	노르웨이의 숲. 상실의 시대, 개똥벌레, 댄스 댄스 댄스	4
1990~1999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 (4), 오후의 마지막 잔디밭, 무라카미 하루키 단편 걸작선, 일각수의 꿈 (2), 양을 둘러싼 모험 (4), 국경의 남쪽, 태양의 서쪽(2), 노르웨이의 숲 (4), 우울한 오후의 화려한 예감, 치즈케이크 모양을 한 나의 가난, 화요일의 여자, 태엽 감는 새, 그녀는 레몬빛 사랑을 아직도 기억하는걸까?, 그때 그 여자는 나를 원했던 걸까?, 꿈에서 만나요, TV 피플, 밤의 원숭이, 세계의 끝과 하드보일드 원더랜드(2), 지금은 없는 공주를 위하여, 렉싱턴의 유령, A to Z, 내겐 천사같은 그녀, 스푸트니크의 연인, 중국행 슬로보트	35
2000~2009	개똥벌레, 빵가게 재습격(2), 신의 아이들은 모두 춤춘다, 회전 목마의 데드히트(2), 밤의 거미원숭이, 중국행 슬로보트, 해변의 카프카, 어둠의 저편, TV피플, 국경의 남쪽 태양의 서쪽, 도쿄기담집, 렉싱턴의 유령, 소울메이트, 노르웨이의 숲, 4월의 어느 맑은 아침에 100퍼센트의 여자를 만나는 것에, 1Q84, 반딧불이, 스푸트니크의 연인	20
2010~2016	잠, 노르웨이의 숲, 빵가게를 습격하다, 색채가 없는 다자키 쓰쿠루와 그가 순례를 떠난 해, 도쿄기담집, 여자 없는 남자들, 이상한 도서관, 중국행 슬로보트, 애프터 다크	9

<표3> 연도별 수필작품 목록

연 도	에 세 이	총 50권
1990~1999	남은 우리들의 시간은, 고독한 자유, 코끼리 공장의 해피엔드, 랑겔한스섬의 오후, 세라복을 입은 연필, 먼 북소리, 그러나 즐겁게 살고 싶다, 슬픈 외국어, 작지만 확실한 행복, 언더그라운드, 오블라디 오블라다 인생은 브래지어 위를 흐른다, 재즈 에세이, 하루키 일상의 여백, 하루키의 여행법, 하루키의 여행법. 사진편, 한없이 슬프고 외로운 영혼에게	16
2000~2009	위스키 성지여행, 무라카미 라디오, 또하나의 재즈에세이, 우천염천(2), 더 스크랩, 먼 북소리, 하루키 하야오를 만나러 가다, 의미가 없다면 스윙은 없다, 재즈의 초상, 비밀의 숲, 시드니 승리보다 소중한 것,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언더그라운드(2).	15
2010~2016	무라카미 하루키 잡문집, 밸런타인데이의 무말랭이, 세일러복을 입은 연필, 채소의 기분 바다표범의 키스, 코끼리 공장의 해피엔드, 쿨하고 와일드한 백일몽, 해 뜨는 나라의 공장, 샐러드를 좋아하는 사자, 이윽고 슬픈 외국어, 포트레이트 인 재즈, 저녁 무렵에 면도하기, 더 스크랩: 1980년대를 추억하며, 나는 여행기를 이렇게 쓴다, 시드니!, 오자와 세이지 씨와 음악을 이야기하다, 이렇게 작지만 확실한 행복, 라오스에 대체 뭐가 있는데요?, 직업으로서의 소설가, 후와 후와	19

4. 무라카미 하루키(村上春樹) 문학의 한국어판 번역 검증

지금까지 무라카미 하루키 문학의 한국어판 번역에 나타나는 오역과 번역투의 양상을 고찰·검증하는 학문적 대응은 일어일문학계뿐만 아니라 국어국문학계나 번역학계에서도 본격적으로 시도되지 않았다.

본고는 가독성을 저해하는 요인 중 한 가지인 번역투 문제와 번역 오류인 오역 문제에 초점을 맞춰 현존하는 일본 인기작가인 무라카미 하루키(村上春樹)의 대표적인 문학작품과 한국어판 번역서를 대조하면서 오역과 번역투 문제에 한정하여 고찰·검증하고 조망한다.

4.1에서는 무라카미 하루키(村上春樹) 문학의 한국어판 번역에서 드러난 오역의 문제를 고찰·검증하고, 4.2에서는 번역투의 문제를 집중 고찰·검증하기로 한다.

4.1 오역 예

다음 예(3)~(8)은 실패한 번역인 오역의 예이다.

(3) 「僕はどっちかというと控え目な人間なんだ。スポットライトは似合わない。添え物みたいな方が合っている。コールスローとか、フライド･ポテトとか、**ワム**！の片割れとか」
「だから私の相手をさせられた」
「でもっていうか、君だってなかなかかわいかったよ」
「ねえ、あなたって過去形を使うのが好きな性格なの?」 『アフターダーク、p.22』
"나는 어느 쪽이냐 하면, 조심스런 성격의 인간이야.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여러 사람 앞에서 으스대는 그런 타입은 아니란 거지. 내게는 들러리 같은 게 어울려. 코울슬로나 프라이드 포테이토 같은 하찮은 존재라고 할까, 그런 **와무**(지렁이 모양으로 된 위장 낚시바늘-역주) 부스러기 같은게 어울려."
"그때 날 상대했던 이유가 그거야?"
"아니, 그래서라기보다, 마리도 여간 예쁘지 않았는걸."
"나 참, 또 과거형으로 말하는 걸 보면, 당신이란 사람은 과거형 쓰는 걸 좋아하는 성격인가 봐?" 『어둠의 저편, p.22』

➪ … 코울슬로라든가 프라이드 포테이토 같은, 혹은 **2인조 뮤지션 웜!**의 어느 한쪽이라든가.
…

위 예문 원문(3)에서 「ワム」는 영국의 2인조 뮤지션인 '웜(Wham)'을 지칭한다. 따라서 「ワム」를 역주까지 달며 '와무(지렁이 모양으로 된 위장 낚시바늘-역주) 부스러기 같은 게 어울려.'의 한국어판 번역은 번역자가 「ワム」를 낚시 미끼로 쓰는 지렁이 등을 의미하는 영어 'worm'의 일본어를 「ワム」으로 착각한 오역이 되고 만 경우다. 게다가 영어 'worm'의 일본어 표기는 「ワム」이 아니고 「ワーム」이다. 번역자의 세심한 주의와 확인 작업의 중요성을 대변하는 대목이다.

(4) つらそうに走る肥満したランナーがいる。一週間前に糖尿病の検査をして、主治医に日々の運動を強く勧められたのかもしれない。僕はその**仲間くらい**のところだ。
『走ることについて語るときに僕の語ること、pp.18-19』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달리는 살찐 러너도 있다. 일주일 전에 당뇨 검사를 받고, 주치의로부터 매일매일 운동을 하라고 강력한 권고를 받았는지도 모른다. 나는 그 **중간쯤**이라고 하면 맞을 것 같다.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p.20』

➪ … 나는 그와 **같은 부류쯤**으로 보면 맞을 듯하다.

위 예문(4)에서 원문의 「仲間」는 '중간'이 아닌 '동료'나 '한패', '같은 부류'를 의미하는 말이니 한국어판 번역은 명백한 오역이 되었다. 이처럼 「仲間」와 같은 흔히 쓰는 기본 단어조차도 자칫 번역자의 부주의 탓에 오역으로 직결되는 경우가 많다.

(5) 戦車砲が無音の砲弾を撃ち、自動小銃が沈黙の**弾音**をばらまき、人々は無言で死んでいった。 『パン屋再襲撃、p.87』
전차포가 무음의 발포를 하고 자동소총이 침묵의 **탄흔**을 흩뿌리는 가운데 사람들은 말없이 죽어갔다. 『빵가게 재습격, p.76』

➪ 전차포가 무음의 발포를 하고 자동소총이 침묵의 **총알 소리**를 흩뿌리는 가운데 …

위 예문(5)에서 원문의「弾音」은 '탄음'으로 '총알 소리', '탄환 소리', '총소리'의 뜻이다. 한편 '탄흔(彈痕)'이란 '탄환을 맞은 자국이나 흔적'을 뜻한다. 따라서 번역자가 원문의「弾音」을「彈痕」으로 착각했든가 혹은 우리말 '탄음'을 '탄흔'으로 잘못 번역한 오역의 예다.

(6) **そんな何のとっかかりもない**ステンレス・スティールの四つの壁をじっと睨んでいると、子供の頃映画で見たフーディニの大奇術のことを思いだした。
『世界の終りとハードボイルド・ワンダーランド1、p.13』
편평한 스테인리스 스틸로 뒤덮인 사면의 벽을 가만히 응시하고 있으니, 어린시절 영화에서 본 푸디니의 마술이 떠올랐다. 『세계의 끝과 하드보일드 원더랜드 1, pp.11-12』

➪ **아무 단서도 없는** 스테인리스 스틸로 뒤덮인 사면의 벽을 가만히 응시하고 있으니, …

위 예문(6)에서 일본어 「とっかかり」란 '실마리, 단서'를 뜻한다. 그런데 「そんな何のとっかかりもない」를 번역자는 '평평한'으로 오역하였다. 「そんな何のとっかかりもない」는 우리말로 '도저히 감을 잡을 수 없는', '알 수 없는', '이해가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등으로 번역해야 문맥에 맞는 번역이다.

(7) 男は首を振った。「あんな**フルーツケーキ**には、へなへなの**オカマ音楽**しか弾けない。じゃなくて、あんたのピアノでしゃきっとやってもらいたいんだ。10ドルやるよ」
『東京奇譚集、p.84』
남자는 고개를 저었다. "저런 **얼간이 녀석**은 흐느적거리는 **엉덩이 음악** 밖에는 연주하지

못 한다니까. 그런 게 아니고, 나는 당신의 피아노 반주로 기분을 내고 싶단 말이오. 10달러 주겠소." 『도쿄기담집, p.88』

➪ … "저런 **게이 녀석**은 비실비실한 **게이 음악** 밖에 못 해. …

위 예문 (7)에서 「フルーツケーキ」는 영어 'fruitcake'에서 온 말로 '과일 케이크' 외에도 '미치광이, 이상한 사람' 혹은 속어로 '남자 동성애자나 게이'를 뜻하는 말이다. 혹은 영어 'fruitcake' 그대로 '프루트케이크'로 번역할 수도 있겠지만 '프루트케이크'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독자는 거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영어 'fruitcake'를 '남자 동성애자나 게이'의 의미로 쓰는 경우는 영어권 내에서도 드물다. 'fruitcake'를 일본어 「フルーツケーキ」로 표현한 경우도 외래어 사용이 비교적 많은 무라카미 하루키(村上春樹) 작품 외에서는 좀처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オカマ音楽」를 '엉덩이 음악'으로 번역한 것 역시 오역이다.

(8) そしてその回の裏、先頭のバッターのデイブヒルトン(アメリカから来たばかりの新顔の若い**内野手**だ)がレフト線にヒットを打った。
『走ることについて語るときに僕の語ること、p.49』
그리고 1회 말 선두 타자인 데이브 힐튼(미국에서 막 건너온 새 얼굴의 젊은 **외야수**였다)이 좌측 방향으로 안타를 쳤다.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p..53』

➪ … (미국에서 막 건너온 새 얼굴의 젊은 **내야수**였다) …

위 예문 (8)에서 번역자는 「内野手」를 '외야수'로 오역하였다. 번역자의 단순한 실수일 수도 있겠으나 출판사와 두 번 이상 거치게 되는 번역자의 원고 교정 작업 및 감수 작업을 게을리 한 탓에 오역이 생긴 경우라 할 수 있다. 통역의 실수는 순간적이지만 번역의 실수는 두고두고 남아 번역가의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번역가는 한 시도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될 것이다.

4.2 번역투 예

아래 예문(9)~(14)는 일본어 원문을 글자 그대로 직역하거나 일본식 한자를 한국 한자음으로 취음한 결과 자연스럽지 못한 표현이 된 번역투의 예이다.

(9) 爆発しても危なくないように奥にある**仮眠室**に持っていかせたんです。
『アンダーグラウンド、p.37』
폭발에 대비하여 구석에 있는 **가면실**로 옮긴 것입니다. 『언더그라운드, p.76』

➪ 폭발에 대비하여 구석에 있는 **수면실(휴게실)**로 옮긴 것입니다.

위 예문(9)에서 일본어 「仮眠室」은 '잠깐 눈을 붙일 수 있도록 해놓은 공간'을 말한다. 그러나 한국어판 번역처럼 일본어 「仮眠室」의 한자를 한국 한자음으로 그대로 옮긴 '가면실'이라는 용어가 우리말에는 없다. 일본어를 그대로 직역한 번역투 표현이다. 따라서 '휴게실'이나 '수면실'로 번역하는 것이 독자가 이해하기 쉬운 번역이다.

(10) ときどき冬の夜空で星が瞬くように、**眼光**が鋭くなる。 『1Q84 1、p.52』
이따금 겨울 밤하늘에서 별이 반짝이듯이 **안광**이 예리해진다. 『1Q84 1, p.47』

➪ 이따금 겨울 밤하늘에서 별이 반짝이듯이 **눈빛**이 예리해진다.

위 원문(10)에서 「眼光」을 '안광'으로 번역한 경우도 직역의 번역투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말하고 쓰는 이해하기 쉬운 '눈빛'으로 번역해야 가독성 있는 자연스런 우리말 번역이라 할 수 있다.

(11) 「おばさん、ひょっとして**ダンカイ**でしょう?」 『東京奇譚集、p.70』
"아줌마, 혹시 **단카이**?" 『도쿄기담집, p.61』

➪ "아줌마, 혹시 **베이비붐 세대**?"

위 예문(11)에서 「ダンカイ(団塊)」[7]는 일본에서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1947년~1949년 무렵 베이비붐 시대에 태어난 세대를 말한다. 다른 세대에 비하여 인구수가 특히 많았던 데서 비롯되었고, '단괴세대'라고도 한다. 경제평론가이자 작가인 사카이야 다이치(堺屋太一)가 1976년에 발표한 소설 『団塊の世代』라는 책 제목에서 유래한다. 그러나 '단괴세대' 보다는 '베이비붐 세대'가 우리에게 훨씬 친근하고 이해가 수월한 번역이다.

7) 단카이(團塊)는 주위보다 단단한 불쑥 튀어나온 덩어리를 의미한다.

(12) 死は生の**対極**としてではなく、その一部として存在している。

『ノルウェイの森(上)、p.47』

죽음은 삶의 **대극**이 아니라, 그 일부로 존재한다. 『노르웨이의 숲, p.48』

➪ 죽음은 삶과 **정반대가(극과 극이)** 아니라. 그 일부로 존재한다.

위 예문(12의 「対極」은 일한사전에 '대극', '반대의 극', '대립하는 극'으로 나와는 있다. 한편 한국어사전을 보면 '대극(対極)'은 '서로 마주 대하는 극', '반대의 극'으로 풀이되어 있다. 일본어 「対極」을 위 (13)예의 한국어 역처럼 '대극'으로 번역한 경우 오역은 아니지만 직역의 번역투 표현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위 예문 (12)의 「対極としてではなく」의 우리말 번역은 '정반대가 아니라' 혹은 '극과 극이 아니라'로 풀어서 번역하는 편이 가독성을 고려한 독자가 이해하기 쉬운 번역이라 할 수 있다.

(13) 「ごめんなさいと島本さんは言った。」
「あやまることはないよ。君が悪いわけじゃないんだもの」
「でも私はあなたの**足を引っ張っているわ**」 『国境の南、太陽の西、p.170』
"미안해요."라고 시마모토는 말했다.
"사과할 건 없소.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니니까."
"하지만 나는 당신의 **발을 잡아당기고 있는 걸요**." 『국경의 남쪽, 태양의 서쪽, p.165』

➪ … 하지만 나는 당신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걸요** …

위 예문(13)의 일본어 「足を引っ張る」는 '방해하다'를 뜻하는 말이다. 우리말에 '방해하다'와 같은 뜻으로 쓰이는 '발목을 잡다'란 표현도 있다. 「足を引っ張る」의 한국어 번역은 '방해하다' 혹은 '발목을 잡다'로 번역하면 문제가 없다. 예를 들어 「外野手のミスがチームの足を引っ張った。」는 '외야수의 실수가 팀의 발목을 잡았다'로 번역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예문(13)의 「足を引っ張っているわ」를 '발을 잡아당기고 있는 걸요'의 한국어 번역은 일본어 원문을 글자 그대로 직역한 자연스럽지 못한 번역투가 된 경우이다. 「足を引っ張っているわ」의 우리말 번역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걸요' 혹은 '방해가 되고 있는 걸요'로 번역해야 자연스럽다.

(14) その写真の中の双子は例の一僕と一緒に暮していたときにいつも着ていた一「208」と「209」という番号のついた揃い安物のトレーナーシャツではなく、もっときちんとしたシックな格好をしていた。 『パン屋再襲撃、p.125』
그 사진속의 쌍둥이는 예의 - 나와 함께 살 때 늘 입고 있던 - '208'과 '209' 라는 번호가 적힌 싸구려 트레이너를 세트로 입은 게 아니라, 더 깔끔하고 세련된 차림을 하고 있었다. 『빵 가게 재습격, p.113』

➪ 그 사진속의 쌍둥이는 **언제나처럼** - 나와 함께 살 때 늘 입고 있던 - '208'과 '209'라는 번호가 적힌 싸구려 트레이너를 세트로 입은 게 아니라, …

위 예문 (14)에서 「例の」 대개 부사적으로 사용하며 '여느 때와 같이', '보통 때처럼', '평상시와 다름없이', '언제나처럼', '늘 그러하듯이'의 의미이다. 예를 들어 「ノックすると、例の調子で「いらっしゃーい」という声が聞こえた。」의 한국어 번역은 '노크를 하자, 예의 그 말투로 "들어오세~요!"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가 아닌 '노크를 하자, 여느 때와 같은(평소와 다름없는) 말투로 "들어오세~요!"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의 번역이 문맥에 맞는 자연스러운 번역이다. 따라서 예문 (14)의 「例の」를 '예의'로 번역한 것은 원문을 글자 그대로 직역한 번역투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번역문은 일차적으로는 번역문 체계에 적합하여 부자연스럽거나 생경하거나 번역투가 되지 않아야 하며, 이차적으로는 원문의 언어 내적·외적 의미에 부합하는 오역 없는 정확한 어감 및 의미전달을 목표로 해야 한다. 질 좋은 번역에 대한 논의는 언어권별로 다양하고 활발하게 이루어져왔으나, 모든 번역에 적용할 수 있는 번역 이론과 번역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질이 좋지 않은 번역은 쉽게 선별할 수 있고 체계적인 번역 교육과 훈련을 통해 줄여나갈 수가 있다.

5. 마치며

번역은 문학이고 문학은 예술이며 번역문학은 문화의 한 영역이라는 전제에 동의한다면 결국 번역작업은 문화의 확장, 문화의 재창조작업이다.

본고는 우리나라 번역문학과 일한번역을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일본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村上春樹) 문학의 한국어판 번역에서 드러난 오역과 번역투를 고찰하고 검증하였다.

기존의 번역 문화는 원문에 충실한 번역, 다시 말해서 일본어 표현 논리에 충실한 번역을 선호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의 번역 문화는 원문인 일본어 표현 논리보다는 결과물인 한국어 표현 논리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번역투는 독자의 가독성과 직결되는 만큼 번역자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며 공들여 번역해야 하는 대목이다. 또한 원문의 정확한 의미 전달에 실패한 번역인 오역의 원인을 밝혀내고 그 오류를 검증하고 바로잡는 일은 한일 양국의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 번역문화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일본어 번역투 문제는 일어일문학 연구자뿐 아니라 국어국문학 연구자에게도 고민하고 해결해야할 많은 문제점을 시사한다. 한·일 양 언어와 문화에 정통한 번역가의 번역을 통해 한국어를 아름답게 가꾸어나가면서 일본문학 작품이 수용되어야 한국문학과 일본문학이 상생하며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무라카미 하루키 작품은 1990년대와 2000년대에 걸쳐 소설부터 신변잡기 에세이에 이르기까지 24개 출판사에서 모두 110편의 작품이 256회에 걸쳐 번역 소개되었다.[8] 무라카미 하루키 작품에 대해 우리나라 독자들이 거는 기대심리와 열풍은 문학을 넘어서 이른바 "하루키 신드롬"이라는 하나의 사회현상이 되었다. 이러한 현상에 도취하고 편승해 과연 한국어판 번역의 제 문제를 간과하지는 않았는지 지금이라도 하나하나 정확하게 짚어보고 고찰·검증하는 과정은 우리나라 번역학 연구에 반드시 필요한 의미 있는 작업이다.

무라카미 하루키 문학의 한국어판 번역의 검증 작업을 통해 일차적으로는 일본문학과 일본문화를 제대로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한국문학과 한국문화, 한국의 번역문화가 나아갈 올바른 방향을 가늠하고 제시할 수 있다

번역학 연구의 최종 목적은 질 좋은 번역물 생산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하며, 가독성 높은 양질의 번역을 바라는 독자의 요구와 기대치를 충족시켜줄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본고의 구체적인 문제제기 및 검증된 고찰 결과는 번역 능력 향상을 꾀하는 번역교육 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앞으로 번역학 연구가 지향해야 할 방향성 제시에도 기여할 수 있다.

본고는 3장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1988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에서 번역 출간된 무라카미 하루키(村上春樹)문학 작품 총 118권 중에서 주로 2000년대에 출간된 주요 번역 작품 중 11권

8) 윤상인 외(2008:37, 2008:92)
그러나 윤상인 외(2008)는 2005년까지의 통계로 2005년 이후에도 여러 권이 번역 출간되었으므로 작품 수는 110편 이상이 된다. 이러한 통계를 볼 때 무라카미 하루키 작품의 거의 대부분이 우리나라에서 번역 출판되고 있는 셈이다.

을 고찰대상으로 선정하여 고찰·검증을 시도한 한계가 있다. 향후 '무라카미 하루키 문학의 한국어판 번역의 검증과 조망'이라는 연구테마로 지속적으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본고의 한계를 보완해 나아가고자 한다.

【参考文献】

김정우(2007)「번역투의 성격 규명을 위한 다차원적 접근」『번역학연구』8권1호, 한국번역학회, pp.61-82
오경순(2008)「일한 번역의 번역투 연구」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_____(2010)『번역투의 유혹』이학사, p.27
_____(2011)「일한 번역과 번역투」『인간과 문화연구』第19輯 동의대학교 인문사회연구소, pp.87-113
_____(2013)「일본어는 어떻게 우리말을 잠식하였나? -일본식 (번역)투의 과잉 양상과 극복 방안-」『동아시아 교류와 문화변용』동아시아연구총서 제1권 동의대학교 인문사회연구소편. 박문사, pp.393-427
_____(2014a)「일한 번역의 번역투 연구 -피동표현과 사동표현 번역문을 중심으로-」『日本近代硏究』第43輯, 韓日本近代学会, pp.119-138
_____(2014b)「일한 번역의 번역투 연구-'~적(的)'의 번역과 번역투를 중심으로-」『日本學報』第99輯, 韓国日本学会, pp.75-92
_____(2015)「일한 번역의 이문화수용과 번역전략」『통합인문학연구』제7권 2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통합인문학연구소, pp.55-90
영미문학연구회번역평가사업단(2005)『영미명작, 좋은 번역을 찾아서』㈜창비, pp.21-22
윤상인 외(2008)『일본문학 번역 60년 현황과 분석』소명출판, p.37, p.92
尹相仁(2014)「村上春樹と東アジアの間を往還するもの」WASEDA RILAS JOURNAL NO.2、p.180

【用例出典】

村上春樹(1994)『ねじまき鳥クロニクル』新潮社
_____(1995)『国境の南、太陽の西』講談社文庫
_____(1999)『アンダーグラウンド』講談社文庫
_____(2004)『ノルウェイの森 上, 下』講談社文庫
_____(2006)『アフターダーク』講談社文庫
_____(2007)『東京奇譚集』新潮社
_____(2012)『1Q84 BOOK1』新潮文庫
_____(2010)『世界の終りとハードボイルド·ワンダーランド 上』新潮文庫
_____(2010)『走ることについて語るときに僕の語ること』文春文庫
_____(2013)『パン屋再襲撃』文春文庫
_____(2014)『女のいない男たち』文藝春秋
권남희 옮김(2004)『빵가게 재습격』창해
김진욱 옮김(2010)『세계의 끝과 하드보일드 원더랜드1』문학사상사
양억관 옮김(2010)『언더그라운드』문학동네
_____ 옮김(2013)『노르웨이의 숲』민음사
양윤옥 옮김(2016)『1Q84 BOOK1』문학동네
_____ 옮김(2014)『도쿄기담집』비채
_____ 옮김(2014)『여자 없는 남자들』문학동네

윤성원 옮김(2002)『태엽 감는 새1』문학사상
임홍빈 옮김(2005)『어둠의 저편』문학사상사
_____ 옮김(2006)『국경의 남쪽 태양의 서쪽』문학사상사
_____ 옮김(2006)『도쿄기담집』문학사상사
_____ 옮김(2009)『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문학사상사

논문투고일 : 2017년 04월 02일
심사개시일 : 2017년 04월 17일
1차 수정일 : 2017년 05월 06일
2차 수정일 : 2017년 05월 15일
게재확정일 : 2017년 05월 16일

〈要旨〉

무라카미 하루키(村上春樹) 문학의 한국어판 번역의 검증과 조망

－오역과 번역투를 중심으로－

오경순

번역은 원문의 내용과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번역문으로 올바르게 표현하고 전달해야 한다. 즉 번역작업이란 크게 두 가지 과정, '원문 이해 과정'과 '번역문 표현 과정'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은 현존하는 일본 최고 인기작가인 무라카미 하루키(村上春樹) 문학의 한국어판 번역에 대해 번역작업의 두 가지 과정인 '원문 이해 과정'과 '번역문 표현 과정'에서 나타난 오역과 번역투를 중심으로 검증·조망하고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면서 대안을 제시하였다.

무라카미 하루키 문학의 한국어판 번역의 검증 작업을 통해 일차적으로는 일본문학과 일본문화를 제대로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한국문학과 한국문화, 한국의 번역문화가 나아갈 올바른 방향을 가늠하고 제시할 수 있다.

View and Verification of the Transl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Haruki Murakami Literature

－Focused on the Mistranslation & Translationese－

Oh, Kyoung-Soon

Translation must deliver the context and meaning of the source text to the target text correctly and accurately. In other words, translation is consisted of two parts; 'Understanding of the Source Text' and 'Expression of the Target Text'.

From this point of view, this paper analyzes the translation of Korean version of Haruki Murakami's novel, one of the most repetitional Japanese writers. Particularly, focusing on the mistranslation and translationese during the processes of 'Understanding of the Source Text' and 'Expression of the Target Text' to suggest solutions and alternatives.

Verifying the Korean version of Haruki Murakami's novel makes readers perceive the Japanese literature and accept cultural meaning. Ultimately it can lead the correct vision of Korean translation, literature, and culture.